

인천지역정보 DB구축

— (재)인천정보통신센터 설립현장을 찾아서

“전국적으로 컴퓨터통신망이 가동되고는 있지만 지역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정보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 말은 곧 우리나라 지역정보화 추진과제중 가장 현실적인 문제점일 것이다.

최근 인천에서는 인천 및 전국에 관한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인천지역의 시민, 기관, 기업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통신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으로 있어 정보산업계에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재단법인으로 설립되는 인천정보통신센터의 이모저모와 추진배경, 사업계획등을 지역정보화 활성화 차원에서 심층계재 한다. <편집자주>

1. INDITEL의 설립배경

인천정보통신센터, 일명 INDITEL은 Incheon Database &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 system의 약자로서 최근 인하대학교가 주축이 되어 인천지역은 물론 인천지역 발전을 위해 전국에 산재한 정보를 한데 모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인천지역 주민들의 지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추기관으로 6월 1일 발족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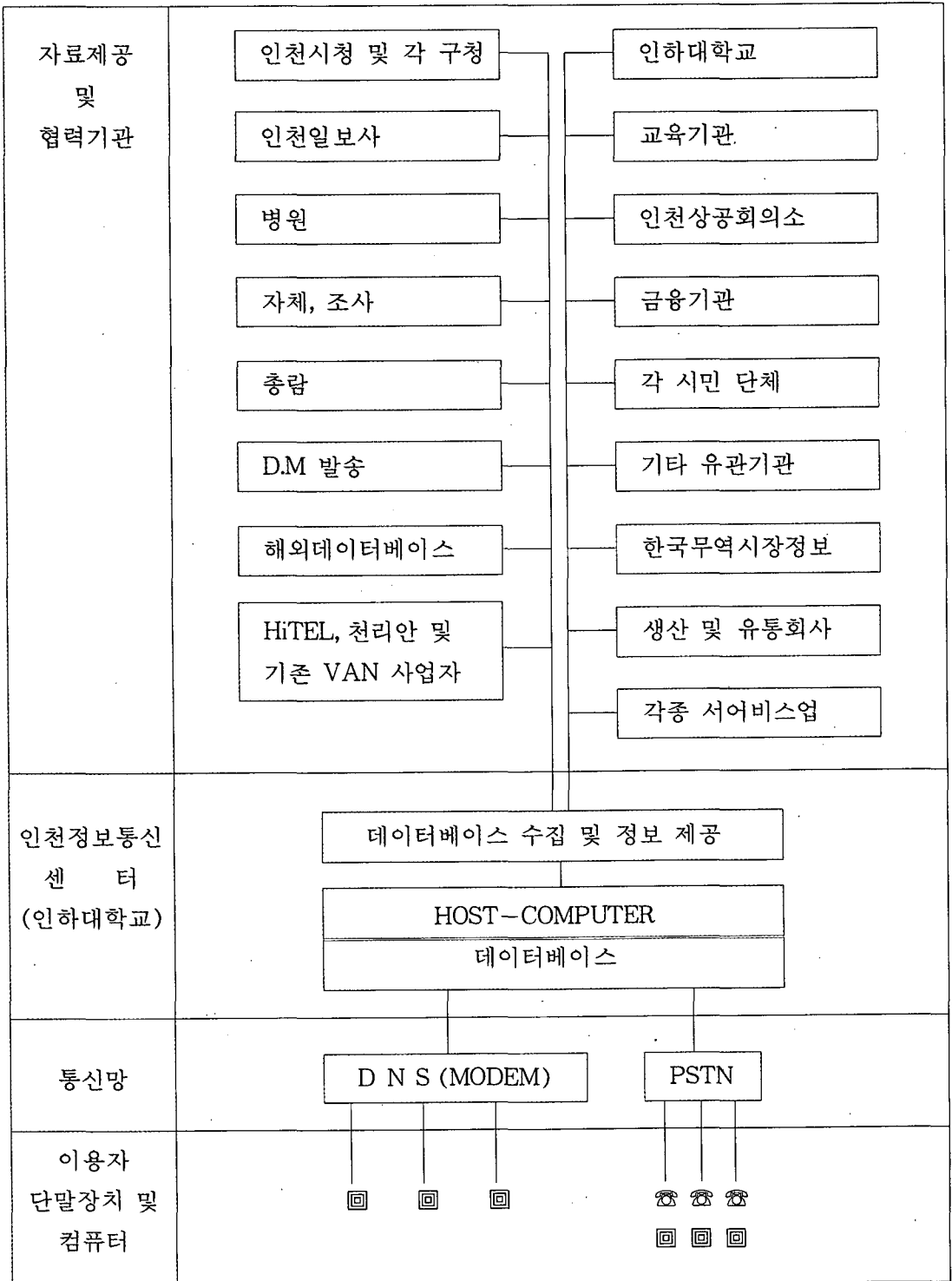
이처럼 대학이 지역정보의 구심체로서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타 지역의 정보화 촉진에 기폭제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INDITEL은

앞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특화된 자료를 중심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정보를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INDITEL의 설립배경에는 지방자치제로의 전환에 대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지역정보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또한 정치·경제·산업·교육·문화·사회등 모든 방면의 활동이 수도권 중심에서 탈피가 요구되는 현실에서 지역경제의 자체 발전 가능성의 저하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중앙과 지방의 격차로 인한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관계자는 말한다.

INDITEL은 이를 위하여 현재 인천지역

<정보 유통 구성도>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Software개발, 전국 데이터베이스 이용을 위한 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인천교육망 구축(초·중·고·대학), 망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기타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여념이 없다.

2. INDITEL의 목표

INDITEL은 이러한 지역정보 구축의 필요성 인식후 인천지역을 최고의 정보요람으로 키워나간다는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첫째, 지역정보망의 구심체로서 지역 정보를 수집, 분석, 가공하여 종합 정보시스템으로 구축, 지역 정보산업·육성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정보화 시대의 첨단 과학도시를 건설하며, 둘째는 산업정보를 수집·분석·가공하여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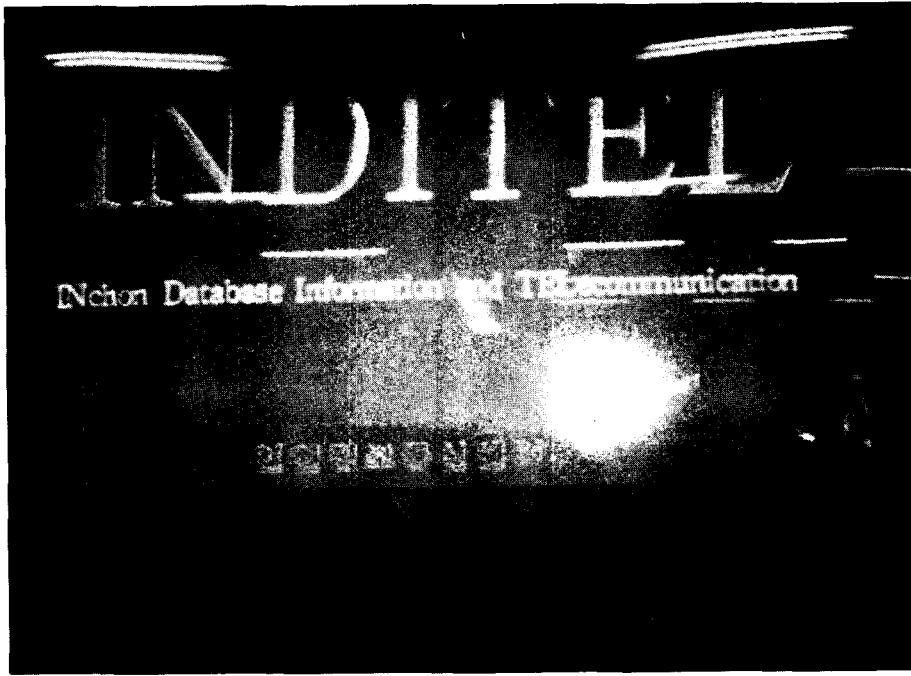
치·경제·교육·사회·문화 등 다방면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균형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며, 셋째, 지역 주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편의성을 제공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정보문화 생활화를 확산시키며, 민관의 혼연 일체감을 조성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지역 정보화 추진에는 여러 문제점이 없지 않겠으나 지역정보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인 지원도 필요함은 물론일 것이다.

3. 주요 정보내용

앞으로 INDITEL에서 지역적으로 제공에 정으로 있는 주요 정보내용을 살펴보면,





대학교, 주요연구소, 학술단체를 연결하여 논문, 연구보고서, 도서 등에 관한 학술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정보, 국내의 기업정책 및 기업현황과 중소기업 지원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정보, 인천지역내 제조업, 금융, 수출입 등의 경제동향, 각종 통계, 분석자료 등을 제공하는 지역 경제정보를 비롯 상품정보, 취업정보, 정책정보, 의료정보, 레저정보, 과학기술정보 등 다양한 메뉴의 정보제공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의 효율적 유통을 위하여는 각 유관기관과 업체의 협력이 원만히 이루어져야 하는 선결과제가 있으나 인천시청을 비롯 각계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차질없이 수행되고 있다고 한다.

4. 맺는말

정보화사회에 대처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여 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는 범 국가적으로 정보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 능력을 갖추어야 함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즉, 각 지역의 정보화 산업을 육성하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정보의 즉시성과 즉시성에 의한 정보의 생산과 활용을 위한 '지역 정보화'의 장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각 지역에 묻힌 정보를 발굴하고 각 지역으로 연결하여 지역별 특성을 살리는 정보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각종 지역정보를 즉시로 제공할 수 있게되고, 이를 통하여 지역문화를 창달,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정보문화의 확산을 꾀하여 미래 정보사회를 살아가는데 편리하도록 하며 이로서 국민의 문화수준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게 될 것이다.